

③ 21세기 수산정책 방향

어항중심 제주형 어촌종합개발

미래해양 교육의 장으로

신해양시대가 본격화되는 21세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단순 어업중심의 수산개발에서
한단계 뛰어넘어 해양의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는 반도에서 드넓은 태평양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양수산개발의
전초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계 추 / 제주도 농수산국장

서 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세계는 기존 경제질서
와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자유
무역체제로 변혁되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본격 돌입했다.

WTO체제 출범과 OECD 가
입으로 새로운 무역체제에서
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수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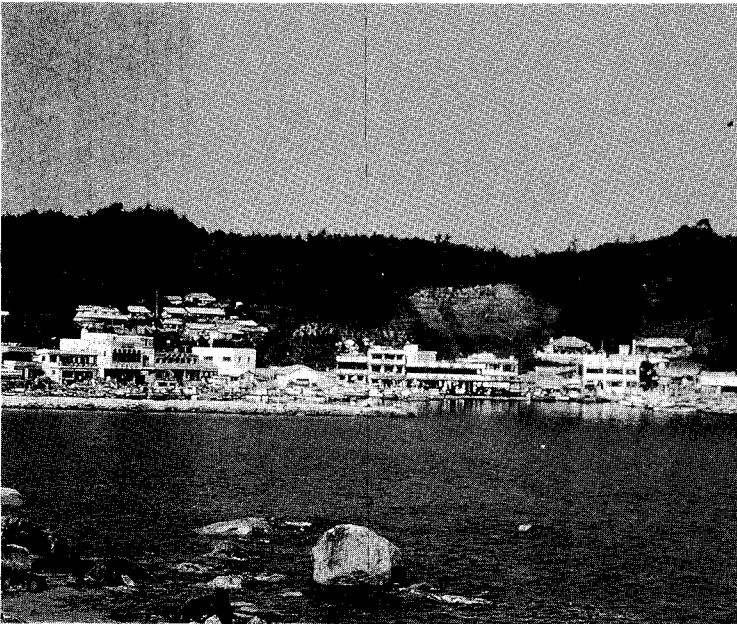
우리 도는 4면이 바다, 무공
해 청정해역으로 수산 개발
merit가 매우 큰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 개발
하면 분명히 제주수산업의 미
래는 밝다고 확신한다.

무한경쟁의 본격화, 신해양
시대의 개막 등 급변하는 시대
적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21세기 제주수산의 비전과 정
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수산업의 실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는 1,845km²의 면적
과 253km에 달하는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북위



33°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에 놓여 있다.

우리 도는 4면이 바다이고, 우리나라 최대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중국해와 연결하여 난류성어족이 회유로이자 월동장이 되고 있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빨이 없고 암석과 자갈로 형성된 무공해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와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산물유통이 불리하고 어업기본시설인 어항 시설이 취약하여 어선어업은 소형어선 중심의 영세한 어업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어항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어선척수

도 늘어나고 어선 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어 어선어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도 제주도의 어선어업은 가족어업 중심의 연안어업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양식어업은 해안선이 단조롭

〈표 1〉 어업별 생산실태

(단위: M/T, 백만원)

구 분		'90	'94	'95	'96
합 계	수 량	37,990	43,849	57,887	54,999
	금 액	143,958	182,627	209,325	258,940
어 선 어 업	수 량	20,331	21,009	37,678	40,245
	금 액	87,826	110,584	138,019	175,957
마 을 어 업	수 량	15,739	20,488	17,521	10,393
	금 액	30,557	34,326	37,679	22,011
양 식 어 업	수 량	1,863	2,309	2,624	4,300
	금 액	25,067	37,432	33,075	60,200
내 수 면 어 업	수 량	57	43	64	61
	금 액	508	285	552	772

고 내만이 없어 바다에 시설을 필요로 하는 굴양식, 김양식, 가두리양식 등 바다양식은 개발되지 못하였으나, 1986년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이 활발한 편이다.

양식어업

양식어업은 파도의 영향으로 바다양식이 절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바닷물을 육상으로 끌어올려 고기를 키우는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이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은 113개소의 육상양식장에서 연간 4,000톤 이상을 생산 60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어업은 육지부나 일본보다도 우월한 천혜의 양식여건을 가

〈표 2〉 양식어업의 실태

(단위: M/T, 백만원)

구분 \ 년도별	'90		'94		'95		'9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91	18,384	3,055	40,870	639	55,552	4,361	60,922
해면양식	1,023	17,905	3,000	40,400	575	55,000	4,300	60,200
넙치	800	16,000	3,000	40,400	575	55,000	4,300	60,200
돔류등기타	223	1,905						
내수면양식	68	479	55	470	64	552	61	722
뱀장어	18	180	20	222	64	552	34	642
송어	47	281	32	224			27	80
틸라파아등기	3	18	3	24				

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연평균 수온이 최저 14℃ 최고 27℃로 넙치양식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16~18℃를 유지할 수 있는 지하해수가 개발됨으로써 여름철에 높은 수온을 내려주고 겨울철에는 낮은 수온을 높여줄 수 있어 월동·월하 뿐만 아니라 연중 고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양식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넙치양식에 이어 전복육상양식어업이 본격 개발되고 있다.

어선어업

어선어업은 연승어업(갈치, 옥돔, 복어)과 채낚기(오징어)어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외 소규모 연안어업인 자리돔 들망어업, 멸치 분

기초망어업, 방어 일본조어업이 지역에 따라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수산의 비전

신해양시대가 본격화 되는

21세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단순 어업중심의 수산개발에서 한단계 뛰어넘어 해양의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 도는 반도에서 드넓은 태평양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해양수산개발의 전초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한 21세기를 향한 제주수산의 비전은 다음 일곱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합리적 경영방식의 넙치, 전복양식 단지화의 국제기지화 둘째, 월동이 가능한 기후여건을 이용한 바다목장화의 실현 셋째, 지역

〈표 3〉 어선어업 생산실태

(단위: M/T, 백만원)

구분 \ 년도별	'90		'94		'95		'9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331	87,826	21,009	110,584	37,678	138,019	40,245	175,957	
연승어업	갈치	3,877	9,510	6,818	40,458	10,499	67,200	7,570	89,950
	옥돔	2,114	11,173	2,052	22,482	1,847	21,000	2,121	27,129
	복어	1,056	28,188	229	4,034	193	3,553	272	2,901
채낚기	오징어	2,150	3,754	1,820	5,036	1,163	2,937	889	3,014
분기초망	멸치	2,653	1,048	990	854	13,820	4,443	14,443	3,057
일본조	방어	1,226	6,042	476	3,419	380	3,853	457	3,191
기타		7,255	28,111	8,624	34,301	9,776	35,033	14,493	46,715

※ 단위어업별 생산고는 잠정수치임.

어선어업의 생력화를 통한 어선어업 경영의 안정 넷째, 생산·가공·유통의 수산계열화 사업의 도입 등 유통구조를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 다섯째, 어항을 중심으로 어업과 관광을 접목시키는 제주형 어촌종합개발 추진 여섯째, 지방적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한 도입된 홍수산원을 제주수산의 중심축으로 육성 일곱째, 해양수산 종합과학관 등 세계일류수준의 해양관광기반 조성

발전방향

① 양식어업의 단지화·국제기지화

육상양식시설은 소규모로 하더라도 수역원의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본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이나 일반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토지비용의 효율성 증대, 시설의 공동화로 운영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양식 단지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양식단지화는 부지 및 취·배수·전기·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개인에게 수조를 분양, 양식하는 사업형태이다.

개방화 시대에 이웃에 있는 국가나 지역간의 상호연대를 통한 새로운 양식어업 육성방

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역간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협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예를들면 중국의 산동성이나 일본의 오끼나와 현에서는 제주도 넙치양식어업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산동성은 겨울에 월동이 어렵고, 일본의 오끼나와현은 여름에 월하가 어려워 넙치양식에는 부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생사료를 염가로 구입할 수 있고,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제주도는 우량종묘의 생산을 비롯하여 연중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종묘를 여름에는 중국 산동성으로, 겨울에는 오끼나와현으로 보내 육성시킨다면 지역간에 서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협력을 통한 국제기지화의 역할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② 바다목장화의 실현

제주도의 연중수온범위(14℃~27℃)는 월동이 가능하므로 바다목장화의 가장 적지라 생각된다. 전북 적지를 이용한 전북 바다양식, 넙치·돌돔·참돔 등 연안어류의 최적 서식지를 이용한 어류 바다양식을 「바다목장화=관리형어업」형태

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제주도형 바다목장화를 실현시키는 일은 제주수산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③ 어선어업의 생력화

어선어업의 가장 근본문제는 선원확보가 문제이다. 고용비용은 물론 안정고용문제가 어선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선어업 경영의 안정은 우선 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제주도는 대부분 소규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인 지역어업이다. 지역어업의 생력화 문제는 지방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여건임을 감안, 도입수산진흥원의 설립을 계기로 지역어업의 생력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④ 수산물 유통개선

수산물 유통은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되면서 생산자의 유통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들이 유통업자와 함께하는 영어법인을 만들어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를 전담하는 수산 계열화 사업시대가 열리고 있다. 복합영어방식의 어업경영 개선은 유통마진을 줄이는 직거래 체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시장변화와

유통주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과제이며, 개방화시대에 영어법인을 통한 계열화 사업은 수산물 유통에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될 것이다.

⑤ 어항을 중심으로한 제주형 어촌종합개발

어촌은 어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어항은 단순히 어선을 수용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어업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고, 어획물 양육 및 유통기지로써 뿐만 아니라 어촌을 찾아오는 도시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어촌민박시설, 수산물직매장, 수중투시선, 관광낚시센터, 관광유어낚시선, 관광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및 해양레크레이션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어촌의 특색있는 풍물과 역사 등을 찾아내어 이를 어촌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어촌으로 사람을 끌어 모으는 이벤트사업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

⑥ 지방적 연구기능의 강화

지금까지 수산기술개발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 특화사업을 위한 수산기술개발을 하고자 하여도 연구개발 업무가 중앙에 귀속되어 지

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9년부터 도립수산진흥원이 본격가동 되면 수산중요기지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기술을 바탕으로 한 운용기술개발과 어촌지도, 어업인 교육 등 종합적인 지역수산의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⑦ 해양관광기반조성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대비하여 미래해양에 대한 산교육장으로의 활용 및 국제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한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을 세계일류수준으로 건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해양관광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과 스포츠 마리나시설 등 해양레크레이션 개발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결 론

오늘날의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해양혁명(Marine Revolution)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해양산업은 앞으로도 개발할 여지가 너무나 많은 미래산업이다. 제주수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자원이어서 재생산력이 아주 크다. 바다밑 해초는 매년

채취해도 또 자라고, 고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번식하고 성장한다. 또한 해양공간 역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1세기는 바다자원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이용할 줄 아는 자만이 신해양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수산업은 「기르고 잡는어업」, 「관리형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도는 지역 Merit를 살린 지역어업개발, 그리고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어촌개발 등을 통하여 2001년대 어가소득 35백만원 을 만들어 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학계, 연구기관, 어업인, 생산자조직, 행정의 발전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는한 제주수산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